

부산MBC 자갈치아지매_대선보도 점검

20220224

MC/ 대통령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의 보도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인데요.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김보영 정책팀장과 함께 지금의 대선보도가 과연 유권자를 위한 정보를 제대로 주고 있는지 톺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팀장님 안녕하세요.

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선보도 전국 상황]

MC/ 정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보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선거 시기, 언론은 유권자를 위한 유익한 정치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유권자는 각 후보와 정당이 제시하는 공약과 정책을 정확하게 알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현재 대선보도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번 대통령선거를 ‘비호감 대선’이다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비호감 선거 프레임’을 언론에서 강조하면 시청자들은 막연하게 구체적인 근거없이 후보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져서 이번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의도적으로 정치에 거리감을 둔다면 하는 정치혐오감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이 나서서 유권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MC/ 그래서 정말 언론이 나서서 후보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만 씌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셨다면 서요? 분석결과는 어땠나요?

김/ 부산민언련이 지난 1월에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가 보고 싶은 보도는 무엇인지 시민들 의견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

는 보도, 정책을 검증보도가 보고싶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책보도를 살펴봤는데요.

지난 2주간 6개 종합일간지(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신문·한국일보), 2개 경제일간지(매일경제·한국경제) 지면과 지상파 3사(KBS·MBC·SBS), 종합편성채널 4사(JTBC·TV조선·채널A·MBN) 저녁종합뉴스에서 나온 선거보도를 분석했습니다.

뉴스에서 정책명을 한 줄이라도 언급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했을 때, '정책언급보도'는 31%(636건)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율도 전체 선거보도에서 그렇게 높은 비중은 아닌데, 정책을 단순하게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검증'까지 나아간 보도를 살펴보면 그 비중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공약과 정책을 검증한 보도는 10%로 10건 중 1건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신문의 정책검증보도건수가 2월 2주차에 들어서면서 미세하게 늘어난 반면, 방송의 경우 줄었습니다. 선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정책검증보도가 현저히 적어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과정을 언론이 과연 돕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특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연관어 분석을 해보면, 정책과 관련된 키워드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MC/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특히 언론에서 많이 언급하는 후보라서 정책이나 공약 기사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의외이긴 하네요.

김/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 '욕설', 윤석열 후보는 아내인 '김건희', '단일화' 등이 연관성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고, 지금 두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코로나 피해 지원'이나 '부동산 정책' 등 정책과 관련한 키워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더 두드러졌는데요. 2월 14일과 15일, 종편 4사(JTBC <정치부회의>·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채널A <뉴스 TOP10>·MBN <뉴스와이드>)의 대선 관련 대담을 주제별로 분석해 봤는데요. 주제별 방송시간 비중이 야권 단일화 17.2%(96분), 김혜경 의혹·행보 10.5%(59분), 윤석열 후보 의혹·논란 10.3%(58분)이었습니다. 특히 '야권 단일화'는 종편4사 모두

방송시간 10%를 넘기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약·정책은 MBN에서 2분
다뤘을 뿐 JTBC·TV조선·채널A에서는 단 1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MC/ 네...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보다는 단일화가 되느냐 마느냐, 후보의 가족관
련 논란이나 의혹이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주로 언론이 선거 판세
의 유불리만 좇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렇다면 지역언론의 대선보도는 어떻습니
까?

[지역언론의 대선보도는?]

김/ 네..아무래도 대통령 선거라는 전국 이슈이다 보니, 지역언론은 국회의원 선거
나 지방선거에 비해서 보도량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후보들의 지역
공약을 점검하거나 후보들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주목하여 소식을 전했는데요. 특
히 대선을 한 달 앞뒀던 2월 7일 이후에는 지역언론도 후보별 정책·공약을 비교한
해설·분석 기사들을 많이 선 보였습니다.

특히 국제신문과 부산MBC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소멸의 해법에 주목한 기사를 내
보냈구요. 부산일보는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가덕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북항재개발’ 등 부산 현안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실행 의지와 이행 방안
을 따져 묻는 기획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특히 2월 17일 <‘던지고 보자’식 지역 공
약, 되레 불신만 키운다>에서 윤석열 후보 유세에서 발언한 ‘가덕신공항 임기중 완
공, 대구신공항 3.8km 활주로’에 대해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30세대의 이번 대선에 대한 인식이나 후보들의 평가를 들어보는 기획보
도도 이어졌습니다. 부산일보는 <2030 지지자의 ‘찐(진짜)心’>, 국제신문은 <대선
부산MZ 세대 속마음> 기사를 연속으로 내보냈는데요. 특히 국제신문은 부산의 대
학언론인네트워크와 협업하여 단순 지지율 조사를 벗어나 청년 당사자의 일자리,
주거, 젠더, 지역소멸에 목소리를 들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기획으로 보여집니
다.

MC/ 2월 14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15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본격적인 대선 운동 시기라 기사량이나 보도내용도 좀 더 심층적으로 전환됐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김/ 오히려 이 시기에는 특히 지역방송은 정책검증보다 후보들의 행보와 야권단일화에 집중하는 기사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KBS부산의 경우는 부산MBC 11건, KNN 12건에 비해 보도량도 8건으로 제일 적었고 유세행보 단신 뉴스가 대부분으로, 지역 공영방송 역할에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나 평가합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시민사회의 ‘이주민 공약 제안’ ‘기후위기 공약 제안’ ‘문화 분권 관련 공약’ ‘항만민영화 중단, 항만공사 지방이양’ 등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책제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MBC가 이주민 공약, 항만민영화 중단 등 2건, 국제신문, 부산일보가 문화분권 공약을 보도한 것 외에 유권자 움직임을 따로 보도하지 않아 다소 유권자 의제에 지역언론이 소홀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언론에서는 부산을 대선 ‘스윙보터’로 강조하면서 PK 민심의 향배가 중요하다고 보도해왔는데, 정작 유권자의 요구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 ‘표’로만 대상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MC/ 네..조금 더 지역민의 정책 제안의 공론장 역할을 지역언론이 해줬으면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들이 부산을 방문 했을 때, 지역언론이 주목해서 보도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경향을 보였습니까?

김/ 네 공식 후보 등록을 하기 전까지를 반영한 보도들인데요. 1월 14일 윤석열 후보, 1월 23일 안철수 후보, 1월 28일 심상정 후보, 2월 5일 이재명 후보가 방문했을 때의 지역언론의 보도량을 보면요.

윤석열 후보 15건, 안철수 후보 5건, 심상정 후보 3건, 이재명 후보 11건으로 압도적으로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보도 건수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각각 방문했음에도 기사에서는 함께 언급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가령, 이재명 후보가 2월 7일에 발표한 부산 9대 공약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기사말미에 “1월 15일 윤석열 후보도 부산 공약 발표한 바 있어”와 같이 윤 후보의 공약을 한 번 더 언급함으로써 언론의 노출빈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보도량은 많았지만 대부분 후보가 방문한 장소와 행보를 단순하게 전하는 스케치 기사거나, 후보의 연설이나 발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기사에서 공약들이 나열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MC/ 보도량에서는 거대 양당 위주로 보도가 됐다는 말씀이시구요. 내용적으로는 어땠나요?

김/ 부산일보는 윤석열 후보 방문 관련 기사가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공공 기관이전 공약’과 ‘산업은행 이전 공약’에 특히 주목하면서 양강 후보의 정책대결의 키워드를 ‘금융중심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신문은 이재명 후보의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을 위한 9대 공약’ 중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남부수도권을 부각했구요.

안철수 후보 방문 보도는 지역방송에서 ‘PK 출신 유일 후보’만 강조하는 보도를 이어갔고 구체적 공약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부산 방문 때보다 단일화 관련 기사로 더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안철수 후보 단독으로 정치 철학이나 공약을 소개한 기사는 단 한건도 없이, ‘단일화 전담 후보’로 프레임화 되어 윤석열 후보와 함께 등장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그 동안 보인 정치행보의 영향도 있지만, 언론이 과도하게 ‘단일화’ 이슈에서 안철수 후보를 부각시킨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설 연휴 직전 방문하여 지역신문이 연휴 휴간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타 후보에 비해 보도량이 현저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심상정 후보의 보도량이 적다보니 심상정 후보가 내세우는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정책이 부각되지 않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기에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역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후보들에 대한 편향되지 않은 보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C/ 네 마지막으로 얼마남지 않은 선거기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시청자 입장에서 언론은 어떤 보도를 해야할까요?

김/ 네...공식선거운동 전에는 백보 양보해서 선거전략이나 후보들의 의혹 제기 보도로 쉽게 시청자들의 눈길 끄는 보도를 했다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 5년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후보별 공약이나 유세 현장과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발언과 주장, 의견 중 잘못된 부분이나 우려스러운 발언을 언론이 팩트체크하고 잘 점검해서 유권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계적 중립에서 벗어나 유권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장해 줄 ‘끝장 검증’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미래와 나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니까요.

MC/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